

시론

직원의, 직원에 의한, 직원을 위한 기업은...

노사관계(노동자와 노동사용자 관계)를 갑을 관계나 주종관계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새롭게 재조명되어야 한다. 노동을 사고파는 관계로만 파악하는 자세는 낡은 관념의 소치이다. 노사관계를 상생관계가 아닌 상극, 대립, 갈등의 관계로 단정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특히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미진하고 소유주의 경영권이 당연시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지배층과 피지배계급의 구분이 확연하고 고착화되어 국가 경제 체제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불과 3세기 전 산업혁명이 풍미하기 이전에는 농경, 유목사회에서 봉건영주나 집권세력의 절대적인 지배하에 소작농민계층만 존립했다. 산업혁명과 더불어 출현한 자본가들은 자본축적과 시장 확보에 혈안이 되어 노동력을 착취하고 식민지를 확장하는데 혼신하게 되었고 이러한 역사적 추세는 20세기 초까지 지속됐다. 이러한 인류 역사발전의 비인도적인 면모에 항의하여 19세기 전반에 대두한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과 제국주의 이론이었고 산업혁명 대열의 막차를 탄 독일의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다.

노동자, 농민계급의 계급투쟁설을 내세워 자

본가 계층의 태도를 주창한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통해 국가독점자본주의를 구현하고 새로운 지배계급을 형성하여 20세기 중반 까지는 체재의 효율성을 구가했으나 인류경제의 폭발적인 다양화에 따른 계획경제의 적응능력 부족과 시장경제의 자력조정능력에 밀려 20세기를 못 넘기고 자멸케 되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노사관계가 없는 듯이 호도되었지만 실상은 거대한 노동조합의 간부계급이 자본가 계급을 대신했던 것이다.

한편, 시장경제주의 체재 내부에서는 20세기 전반에 닥친 대공황을 치유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정책의 보정을 통한 국가총수요의 확대를 모색하면서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협약권을 활용하여 노사관계의 갈등과 대립을 희석 시키겠다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1세기 전에 출현한 이 노동조합 운동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목격되는 노조활동이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속화되고 노동계층의 경영참여가 제도화되고 노조의 지도계층이 부패하면서 노조의 존재의의가 회의적으로 선호했다.

오늘날 한국의 노사관계를 인식하는 차원은 거의 20세기 전반기의 관념에 가깝다. 20세기 후

반기에 들어 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되었고 이는 자유시장경제주의와 기업가정신을 배경으로 경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사회적 결단의 지원을 받았다.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기업의 정체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기업은 하나의 조직체로서 기업의 존립을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들이 투여되어야 한다. 자본가의 자본, 경영자의 경영관리, 노동자의 노동력 등은 대등한 지위에서 기업이라는 구성체를 생존하게끔 한다. 기업의 구성원은 그 역할만 다를 뿐 기업의 존립에 기여하는 정도는 차등화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유기적인 조직체인 기업의 구성원들 사이엔 주종관계나 노사관계는 있을 수가 없다. 이 획기적인 개념이 소개된 지 반세기가 흘렀다. 기업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기업체의 구성원으로서 기업체의 존립에 기여한다. 기업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진화하며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직원의, 직원에 의한, 직원을 위한 기업은 쇠망의 길을 걷지 않을 것이다.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가 그렇듯이.

주 | 요 | 단 | 신

일본 KITO 대표이사 본사 내방

지난해 9월 일본 KITO 요시오 키토 대표이사가 개성을 방문했다. 이에 지난 2월 영업기획&마케팅부 고치 고이즈미와 기술개발부 테루아키 도바시, 주명찬 부산지사장이 당사를 방문하였다.

이날 슈퍼맥의 제조공정 및 시험 및 품질검사 등을 견학하고, 연구개발 제품의 조립 과정과 성능을 현행 제품과 비교, 기술 토의를 하였고 제품의 성능과 품질, 안전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에 양사는 현 시장의 상황과 이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며 앞으로의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일본 KITO(1932년 창립)는 13개국에 공장 및 지사를 둔 세계 최대의 호이스트 크레인 제품을 제조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본사는 1998년 이래



▶ 왼쪽부터 김원세 키토코리아 대표이사, 정동원 대표이사, 요시오 키토 대표이사, 모치즈키 히데키 상무이사, 유영일 부장

꾸준히 슈퍼맥을 공급, 현재 마그리프트류 일본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다.

SIMTOS

2014 KOREA

4.9 수 ~ 13 일 KINTEX

제16회 2014 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

개성은 전시기간 동안 이지맥, 슈퍼맥 오토맥 등 다양한 마그리프트 제품과 함께 엉구자석체 MAGBED를 소개하고, 전시특별가격으로 현장 판촉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부스 방문자에 한해 추첨을 통한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하였다.

이번 전시회 초대장 배부 및 상세문의는 본사 영업부(051-831-4545~6)로 연락 바랍니다.

개성테크노로지스(주) 부스번호 8D800

영구자석식 리프팅 마그네트 바로 알자!

최종 사용자나 취급 유통회사 영업자들께서 자석 혹은 지남철은 어떠한 쇠붙이도 잘 붙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거나 간혹 저 제품은 되는 데, 왜 이 제품은 안 되느냐고 상대적으로 무조건 비교하여 제품 품질에 대해 의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 리프팅 마그네트를 사용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리프팅 마그네트 정격용량을 만족하기 위한 운반물의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제품의 흡착면과 운반물의 표면이 깨끗한 상태
- 2) 운반물은 25S 이상의 표면 조도로 가공된 면으로 재질은 연강(mild steel)
- 3) 운반물의 두께는 25mm 이상으로 크기는 3M를 넘지 않는 조건(용량에 따라 운반물의 두께를 제외한 가로×세로의 크기는 더 작아질 수 있다.)
- 4) 운반물의 표면은 처리(도금, 도장, 열처리)가 안 된 상태

상기의 내용은 리프팅 마그네트의 한 대의 제품이 흡착력 시험기(시험 실제 흡착력)에서 제품별 안전율이 적용되어 정격 용량에서 만족하기 위한 조건이며 이런 조건에서 맞지 않다면 사용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정격용량에 적합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안전율이 높다는 것은 나쁜 조건에서 흡착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리프팅 마그네트를 사용해서 운반할 수 있는 흡착물의 조건은 매우 다양하다.(재질, 가로×세로 × 두께, 표면상태, 표면처리, 열처리, 틈 등)

상기의 운반물의 조건이 아닌 부정적인(나쁜) 조건을 100% 만족하면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율이 상상 이상으로 높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리프팅 마그네트 제조처는 이런 안전율을 2:1~3:1의 범위에서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율은 부정적인 운반물의 조건에서도 흡착하여 운반할 수 있는 확률을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운반물의 무게 외에 다양한 조건들을 먼저 확인하여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흡착력 시험은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고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가장 최적의 조건에서 시험 한다.

자석의 자력과 제조과정의 편차로 동일한 용량의 제품들도 흡착력이 다르며 시험기가 가지는 오차나 흡착 조건이 불량하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개별 흡착력 변화를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없고 데이터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밀하고 최적의 조건에서 흡착력 시험한 수치의 최대값 기준으로 안전율을 적용하여 정격용량으로 운반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실제 운반물이 흡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어도 시험 실제 흡착력)에 가까운 무게가 흡착 인상되지 않는 이유

- 1) 운반물의 무게 중심에 리프팅 마그네트를 정확하게 위치 시킬 수 없다.
- 2) 제품과 운반물을 흡착 시킨 후 호이스트로 들어 올릴 때 충격과 속도가 흡착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흡착력 시험에서는 이런 충격과 속도가 거의 없다.)
- 3) 리프팅 마그네트를 사용함에 따라 흡착면의 손상으로 흡착력의 감소(사용 환경이나 시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 4) 리프팅 마그네트와 운반물을 흡착 시킨 후 호이스트로 들어 올릴 때 정확한 수직 동작이 될 수 없는 조건
- 5) 이 외에 작업자가 인지 할 수 없는 작업 조건이 있을 수 있다.

이 시험은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며 실제 운반물에 적용할 경우는 상기의 내용으로 흡착력이 많은 감소를 가져온다.

5. 한 대 이상의 리프팅 마그네트를 빔으로 연결한 경우 전체의 리프팅 마그네트의 정격용량의 합이 운반물 무게와 같을 경우에 흡착 인상 할 수 없는 이유

다음과 같은 예제에서 운반물 무게를 들 수 있을까?

예) MGM 10000 × 2대 = 20ton,
운반물 무게 = 20ton

H-BEAM에 체인으로 한 대 이상의 리프팅 마그네트를 설치하여 운반물을 흡착 인상할 경우, 각각의 리프팅 마그네트가 제품의 무게 중심에 따른 수직 하중을 자유롭게 받지 못하고 리프팅 마그네트가 서로 구속을 받는다. 또한 운반물을 흡착 인상 직전에 리프팅 마그네트 각각 동일하게 하중을 분산해서 받지 못하고 특정 리프팅 마그네트가 용량 이상의 하중을 담당하게 되므로 정격 용량을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되어 먼저 운반물에서 떨어지면서 연쇄적으로 낙하하는 현상이 발생된다.

일반적으로 리프팅 마그네트를 한대 이상을 설치하는 이유는 크기가 3M를 초과 할 때, 운반물이 두께가 얕아서 휘어지거나 길이가 긴 경우에 충격으로 떨어질 수 있어서 안전상의 이유로 휘어짐과 충격을 감안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여유 있게 수량을 정하며 설치한 리프팅 마그네트의 수량의 정격용량의 합이 운반물 무게의 최소 1.5배 이상의 정격용량으로 설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대수의 리프팅 마그네트를 설치를 하여도 한대의 정격용량이 운반물 무게와 같게 선정을 한다.

리프팅 마그네트의 용량 선정은 매우 복잡하며 예측하기 힘든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운반물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제품 선정에 실패를 할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구입처나 제조처에 문의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용량 선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부>



▲ MGM-10000(정격 사용 용량 10톤) 두 대로 14톤 (철판 가로 5,000×세로 1,400×두께 250mm)의 운반물을 흡착한다.

상기의 내용으로 흡착력 시험한 결과가 실제 운반물이 최적인 조건이어도 흡착력 시험(최대흡착력)의 무게를 가진 운반물을 인상 할 수 없다. 이것은 흡착력을 시험하는 방법과 실제 제품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발생 되는 현상으로 제한하거나 규정하고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흡착

오토맥(ATM series), 메가맥(MGM series) 안전율 3:1 적용 출시

개성은 2014년 5월부터 마그리프트 전 제품에 대해 안전율 3:1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자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변경에 해당되는 마그리프트 품목은 오토맥과 메가맥 기종이며 슈퍼맥 및 이지맥 기종은 기존 안전율 3:1로 제작 판매되고 있어 변경사항 없이 기존과 동일한 사양으로 공급될 것이다.

마그리프트의 안전율(SAFETY FACTOR)는 제품 흡착능력이 작업물의 상태나 작업 조건에 따라 감소할 경우를 예상하여 작업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택된 비율로 가령 정격흡착인상능력이 1,000kg인 제품의 경우 안전율 3:1을 적용하면 시험 실제흡착인상능력은 1,000kg의 3배인 3,000kg 이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만일 안전율 2:1을 적용하게 되면 똑같은 정격흡착능력이 1,000kg인 제품은 시험 실제흡착인상능력이 2,000kg인 제품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안전율

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 제품의 시험 실제흡착인상능력이 결정된다. 따라서 높은 안전율이 적용된 제품일수록 시험 실제흡착인상능력이 높게 나타나게 되며 이는 실제 정격흡착능력이 표기상 같다고 하더라도 실제 흡착능력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한편 측정된 시험 실제흡착인상능력은 흡착력 시험 기기에서 측정된 수치로써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흡착능력이 감소하게 된다. 흡착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써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그중 작업물의 상태로 인한 흡착력의 감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흡착물의 재질, 두께, 표면 조도, 마그리프트와 흡착물 사이의 틈, 흡착물의 후처리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흡착능력이 감소되는 요인을 감안하여 높은 안전율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제품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일 수 있

다. 최종사용자는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안전율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성은 3:1 안전율을 각 제품에 적용하여 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흡착력 시험 장비를 갖추고 있는 곳도 개성이 유일하다. 또한 모든 제품은 출고 전 전수검사를 통해 흡착력을 측정하며 측정된 데이터는 컴퓨터에 저장, 관리되며 흡착력 시험성적서를 각 제품 포장 시 동봉하여 사용자가 직접 보고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안전율이 2.5:1에서 3:1로 변경된 제품은 오토맥과 메가맥 기종이며 안전율 변화에 따른 변경된 표준 재고품 상세 제원은 2014 마그넷 제품목록과 홈페이지(www.ksmag.co.kr)를 참조하시고,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영업부로 전화(051-831-4545)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부>

주 | 요 | 단 | 신

도장과 장기현, 전국장애인기능대회 금상수상

지난해 9월 김대중컨벤션센터 및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에서 개최된 “제30회 전국장애인기능대회” 기구제작부문에서 도장부서 장기현님이 2연패 금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거두었다. 그리고 상금 중 일부를 개성사우회에 쾌척하여 그 훈훈함을 더하였다.

HI-TEN STEEL 싱가포르 수출 청신호

지난해 9월 싱가포르의 조선기자재 남풀 업체인 HI-TEN STEEL의 GARY CHAN님은 본사 공장 견학 후 개성 제품의 우수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싱가포르 소재 조선소에 개성제품에 대해 소개하기로 하였고,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호주 EASYLIFT, 본사 내방

호주 EASYLIFT의 Rodgers Lucille님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5개월 동안 부산에 상주하면서 본사 제품의 작업원리부터 공정까지 체계적으로 수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KOMARINE 2013’ 전시회에 참석해 외국인 참관객들에게 개성의 제품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영어회화 학습을 희망한 직원들에 한하여 주 2회씩 수업을 진행하였다.

개성사우회 ‘송년의 밤’ 행사 및 야유회

지난해 12월 20일 개성 직원 및 가족, 협력업체



▶왼쪽부터 사우회 회장 권정원님, 우수사원 표창장 수상자 박성철님, 공로폐 수상자 장기현님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하단 소재 센텀비페에서 ‘송년의 밤’ 행사가 마련되었다.

이날 사우회에서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참석자 모두가 준비한 선물 교환식을 가지고, 넌센스 퀴즈 및 추첨을 통한 다양한 상품 증정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회사 발전에 공을 세운 직원에게 공로폐와 표창장을 수여하는 시상식도 거행하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개성사우회에서는 포함 소재 내연산에서 야유회를 가졌다. 모든 임직원이 함께한 야유회는 단합 산행과 보물찾기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 참가

‘KOMARINE 2013’

개성은 지난해 10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KOMARINE 2013’에 참가해 자동식 마그리프트인 오토맥(AUTOMAG) 작동 시연과 더불어 슈퍼

맥, 이지맥, 메가맥 등 수동식 마그리프트들을 선보였다.

또한 부산 최대 취급유통회사 ‘한국기업’의 영업자들이 전시기간 동안 참관객을 대상으로 본사 제품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날 제품을 주문하는 고객에게는 특별 할인 기회를 제공, 부스 방문객에 한해서는 경품추첨 및 부대 행사 이벤트 진행으로 고급바람막이 자켓, 영화관람권 등을 증정했다.

사원동정

2014년 새해를 맞아 대대적인 조직 개편 및 인사발령이 단행되었다.

먼저 부서별 업무역량 강화와 경영개선을 위해 생산본부 소속 공작기계부서가 제관부 서로 통합, 경리과와 총무부가 분리, 주제과의 신설이 있었다. 이에 생산업무 총괄 상무 이사로 최영택님, 생산계획 및 연구개발 상무이사에 김승환님, 총무부장으로 권정원님이 진급하였다.

새로 신설된 주제과 부서장에는 박성철님, 자재구매과 부서장에 황명옥님, 품질검사과 김애분님이 각각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정현준님이 총무부로, 부산진 여자실업고등학교 실습생이었던 김지은님은 지난 3월부터 영업부의 정직원으로 개성의 새로운 식구가 되었다.

전기가 전혀 필요 없는 **MAGBED**

영구자석 자력은 블멸의 녹색에너지



MPM 4080



맥베드가 좋은 3가지 이유!



전기 제로

전기를 일체 사용하지 않아 에너지 효율 증대



전선 제로

전선이 없어 설치와 사용이 편리, 생산성 증대



척 컨트롤 제로

전기, 전선 제로로 컨트롤러 설치 불필요

맥베드 구매 시
맥클린 MC-1 증정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MagClean MC series Demagnetizer

“잔류자기 깔끔하게,
잔류자기 손쉽게”



잔류자기 제거 용도로 사용되는 핸드 탈자기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탈자 작업 과열 방지 센서 내장
절삭 공구나 버니어 캘리퍼스 등 측정 도구, 베어링, 볼트 등의 부품과 금형 소재에 발생되는 잔류자기 제거
사용자가격 121,000원(부가세 포함)



금형의 부분적 탈자 작업



절삭공구의 잔류자기 제거

※ 자세한 제원은 홈페이지(www.ksmag.co.kr)와 마그넷 제품 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